

보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93
공인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刊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본부 제36차 정기총회

“을 가을 가족동반 체육잔치”

鄭昭永회장 선언 반가운 재회... 초긴축 예산 1억6천만원 승인

본부동창회 제36차 정기총회가 4월 8일 오후 6시30분 모교(경남교) 국산기념관에서 열려 용마테니스대회·용마골프대회·기별야구대회·용마의 밤 행사 등 올해 주요사업계획안과 결산보고 및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소영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조대재부회장(7회)을 비롯한 임원진 등 2백80여 동문들이 참석한 총회를 주재,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조직강화에 앞장설 수 있었다”며 “을 가을에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부동창회 제36차 정기총회 광경(99년 4월 8일 모교 국산기념관).

나머지 70만7백14원을 이월시켰다. 용마장학회 98년 총수입은 2억1천7백39만7천2백19원으로, 이를 목적사업비 등 5개부문에 충당했고 나머지 88만1천2백76원을 이월시켰다. 본부 99년 예산규모는 1억6천3백93만8천9백9원이며 회보는 3천5백90만7백14원, 용마장학회는 1억9천5백89만9천5백46원으로 편성했다. 정회장은 앞서 유공자 표창을 통해 지난해 졸업 2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헌신한 제32회 이민재회장과 추규환재경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집행부에서 박동렬(8회) 문정수(12회·전 부산시장) 김대원 부회장(20회) 강진평 수석감사(10회) 등이, 재경동창회서 김경희 고문(9회) 김영해 사무국장(23회) 김순규 총무(26회) 등이, 지역에서 김종원 대구회장(12회) 최태완 김해회장(13회) 박홍조 울산사무국장(22회) 등이 참석해 행사를 뜻깊게 했다. 참석동문들은 총회 직후 오후 8시 10분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단합회에 참석, 축배를 들며 지난 1년간 쌓인 회포를 풀었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동문들이 정기총회 직후 경남고체육관에서 열린 단합회에 참석, 축배를 들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다. 이어 김봉길 모교교장(8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최득호사무국장(11회)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주요의안 심의에서 △98년 본부 및 회보운영 결산보고 △99년 본부 및 회보운영 예산안 △용마장학회 98년 결산보고 및 9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강진평수석감사(10회)는 감사보고를 통해 98년 결산 내용에 대해 “적정 집행”이라고 보고했다. 98년 본부운영 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규모는 1억4천2백96만1천1백77원. 이를 모교지원, 조직강화비, 일반관리비, 야구지원 등 4개 부문에 충당했고 나머지 1천93만8천9백9원을 이월시켰다. 또 회보는 총수입규모(광고비 등) 3천6백92만2천6백94원이며, 이를 인쇄비, 국내외 우송료 등에 충당했고

직능회 활성화 행사 지원

본부·용마장학회 이사회... 결산·예산안 심의

본부동창회 올해 제1차 이사회가 3월 2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뷰페’에서 열려 제36차 정기총회를 4월 8일 모교에서 개최기로 확정했고 98년 본부운영 등 결산 및 99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소영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98년 본부 및 회보운영 결산보고 △99년 본부 및 회보운영 예산안 △용마장학회 98년 결산보고 및 99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정회장은 각 직능회 주체 각종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본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본부회비 미수금증 유고자(사망·부도 등)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안을 마련,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 용마장학회는 3월 24일 오후 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미식당’에서 올해 제1차 이사회를 열고 98년 결산보고와 99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된 자료에 따르면 △98년 결산규모는 총수입 2억1천7백39만7천2백19원(법인세 환급금 2천2백70만9천4백60원·기금이자 1억9천4백68만6천4백87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사업비(장학금 등 5개 부문 1억4천8백26만7천6백원), 법인세(4천1백14만7천2백70원), 운영

비(인건비 등 4개부문 2천1백56만3천1백43원), 차입금반제(5백53만7천9백30원) 등에 충당했고 나머지 88만1천2백76원을 이월시켰다.



3월 26일 열린 본부동창회 99년 첫 이사회(98년 결산회) 모습.

모교 99학년도 입학식

모교 경남고 99학년도 입학식이 3월 4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서 김봉길교장(8회)주재로 열려 신입생 4백89명의 입학울 환영했다.

또 경남중은 3월 5일 김성찬교장(12회)주재로 신입생 3백46명의 입학울 환영했다. 이날 정소영 본부회장(6회)와 최득호사무국장(11회) 등 동창회 임원들이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축하·격려했다.

99년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89만9천5백46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금리인하에 따라 지난해보다 3천5백만원 정도 축소된 규모이다. 따라서 경남교와 경남중 야구지원비, 연구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 긴축을 단행했다.

정상천고문(4회) 해양수산부장관에



본부동창회 제23대 회장을 지낸 정상천동문(4회·자민련부총재)은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에 발탁됐다.

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야기된 한국측 어민들의 피해, 특히 부산권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난 최근 사태와 관련해 해양수산정책의 사령탑이 된 만큼 실무와 정치력 발휘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부고문인 정동문은 부산대 법정대를 졸업한 후 사법·행정 양과 고시에 합격했고 이후 정통 내무관료의 길을 걸은 재선의원이다.

고 박정희대통령시절 서울시경국장과 치안국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서울시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임시 모교 야구후원회를 이끌며 기금조성에 힘썼다. 동창회장 재임중에 제1회 용마대동제를 개최해 동문·가족이 모교에서 한데 어울렸고 용마대상을 제정하는 등 조직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을 쏟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일처리는 빈틈이 없는 정동문은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쥘쿠바대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자민련 내 일본동맹으로 통한다.



제23대 회장 역임
조직활성화
크게 기여

용마골프대회 5월 17일 동래G.C.서 개최

제2회 기별 단체·개인전... 통도C.C. 남코스 계획변경

동창회장배 쟁탈 제2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가 5월 17일(월) 통도C.C.측의 사정으로 부산 동래 베네스트 G.C.에서 제16회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다. 단체 및 개인전에서 모두 50

개팀(2백명)이 기량을 펼칠 이번 대회에는 부산을 비롯, 서울 울산 마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등의 '내노라'하는 쟁쟁한 용마골퍼들이 각자 동기회의 명예를 걸고 출전, 라운딩에

몰입하게 돼 기대가 크다.

한편 지난 12월 3일 양산 통도사간 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제20회동기회, 개인전 우승은 윤정환동문(27회)이 차지했다. *대회참가신청 및 문의: 제16회동기회 (051)248-0016

시평

정인식



제28회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인식씨 대표

우리들의 구덕골 학창시절이 엇 그제 같은데 벌써 2세대가 똑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물론 평균화라는 과정을 거쳤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지만 학교생활이나 대학 입시제도의 골격은 이삼십년 전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보니 입시경쟁에서 파생되는 동기들의 고민 또한 비슷하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남은 것은 이것저것 뜯어 붙인 누더기제도 속에 오늘날 아이들만 멍들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동문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학업성적도 우수하다고 한다. 그 탓인지 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킨 동기들의 자랑스런 소식(?)들도 전해 듣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역할분담과 상호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러는 상당히 고질적인 것들도 있다.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일 교육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쏟아내어 일부는 정착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당수들은 집단간의 이해관계나 여건 미비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조차 소화를 못해내고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은 교육의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여겨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관심하거나 공공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참는 것을 그동안 미덕으로 생각해 왔다. 그나마 일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머니들뿐이며 아버지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관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교육문제가 기성세대의 사회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조적인 것

이고, 사실 교육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온 교육이론가나 행정가들이 대부분 아버지들인데도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와서 젊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내준 '아버지자리'도 되찾고, 자녀들이 안고 있는 고충과 불만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름, 컴퓨터게임 이름, 친구들의 이름 등을 외우려 애쓰고 학부모 모임에도 가끔 가 보았다. 아직도 모임에서 또래의 아버지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 덕택에 아이가 공부하는 교실분위기 정도는 저절로 익히게 되었다. 점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 셈이다.

그래서 감히 우리 동문들에게 이제부터는 그동안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운 각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의 아버지'가 되어 방황하는 아버지들과 흔들리는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건의하고 싶다.

범위를 좁혀본다면 주변의 어려운 동문들과 그들의 자녀가 우선 해당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동문들이 아버지로서 이웃과 학교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인사나 교사와 함께 우리들의 자녀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마침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5개년계획'에도 단위 학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좋은 시책들도 직접적인 참여가 없게 되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 젊은 동문들만이라도 학교 안팎에서 교육참여문화의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아버지들이 교육에 나서야

배기원(12회) 인제대 의대학장 부임



배기원동문(12회·사진)은 최근 인제대 의대학장에 부임했다. 부산대 의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배동문(해부학 전공)은 경희대 의대 부교수를 거쳐 인제대 의대교수 인제대교무처장 중앙의학연구소장 의학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춘배(12회) 부산과학고 교장에 영진



한춘배동문(12회·사진)은 3월 2일 부산과학고 교장으로 부임했다. 한동문은 서울대 사범대와 부산대 대학원 생물학과를 졸업, 이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기회 부회장으로 동창회 활성화와 동문 유대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문은 부산과학고 교감 부산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장동석(12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장동석동문(12회·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신임회장에 선임돼 2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했다. 장동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회원과 미국 및 일본 미생물학회 정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간 5권의 저서와 8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차례 학술상을 받았다. 한국식품과학회 영남지부장과 한국수산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 HACCP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희주(15회)駐페루 한국대사 발탁



박희주동문(15회·사진)은 96년부터 주에멘대사로 재임하다 2월 19일 단행된 해외공관장 인사에서 주페루한국대사에 발탁됐다.

외국어대 독문과를 나온 박동문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마이애미 등지에서 참사관 및 영사를 지내다 92년 귀국, 외교안보연구원 문화홍보심의관 국방대학원 등에서 파견 근무했다. 박동문은 분주한 외교관 생활 속에서도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 행정학을 전공한 후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종석(16회) 울산세무서장 취임



김종석동문(16회·사진)은 태백세무서장 재임중 3월 31일자로 울산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70년 4월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동래세무서 총무과장 광명재산세과장 남인천재산세과장 시흥소득세과장 국제청심사 및 징세과 등을 거친 후 태백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동문은 영어와 일어에 능통해 74년 7월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ADB차관 협의차 필리핀에, 77년 9월 한일각료회담 실무협의단 일원으로 일본에 각각 파견된 바 있다.

각계 영진 동문

- ▲ 금융계 ▷ 김동렬(12회)=동아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 천현주(20회)=한빛은행 이사 ▷ 전영돈(23회)=하나은행 본부장 ▷ 권길준(23회)=주택은행 서울 망원동지점장 ▷ 최범수(29회)=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
- ▲ 검찰청 ▷ 하찬봉(14회)=서울지검 강력과장 ▷ 황성진(19회)=수원지검 2차장검사 ▷ 문규상(27회)=인천지검 형사1부 부부장

- ▷ 이명우(27회)=서울북부지청 형사4부장검사 ▷ 이춘성(28회)=서울지검 공안부 부부장 ▷ 유일석(35회)=의정부지청 검사 ▷ 정인창(37회)=서울 남부지청 검사.
- ▲ 경찰청 ▷ 성낙합(21회)=경찰대 교수부장

- ▲ 그룹사 ▷ 박창병(18회)=대우건설 부사장 ▷ 이삼우(19회)=롯데햄·우유 이사 ▷ 김갑렬(21회)=LG화학 부사장 ▷ 강태순(21회)=두산(주) 전무이사 ▷ 박명옥(21회)=SK텔레콤 상무이사 ▷ 배호원(22회)=삼성생명 전무이사 ▷ 오명훈(24회)=삼성증권 상무이사 ▷ 이상훈(27회)=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 이사 ▷ 최광해(28회)=삼성전자 상무이사.

駐日 한국기업연합회 회장 선임

김대욱(18회) 쌍용재팬 대표취체역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충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마가족의 유대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쌍용Japan 대표취체역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대욱동문(18회·사진)은 3월 9일 일본 도쿄

에서 열린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임기 2년)에 선임됐다.



도쿄지역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문은 이번 회장 취임을 통해 무역확대와 경제 교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주목을 모았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93년 11

월 설립, 3백40여개사의 결집으로 출범했으나 97년말 IMF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많은 회원사가 일본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현재는 약 3백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문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쌍용산업(주)에 입사한 이래 (주)쌍용Japan 오사카지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통.

김동문은 "고국의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최근까지도 귀국하는 동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 회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며 "집행부가 조직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중고 제13회동기회 졸업40주년기념 모교방문행사

일시 : 1999년 5월 8일(토) 오후 3시 ~ 5월 9일(일) 장소 : 경남고등학교 강당

- | | | | | | | | | | | |
|-----|-------|-----|-----|-----|-----|-----|-----|-----|-----|-----|
| 고문 | 金相漢 | 부회장 | 吳漢洙 | 이사 | 金昭雄 | 金洪哲 | 裴永奉 | 玉鍾漢 | 鄭德治 | 韓炳祐 |
| 孫在佑 | 吳元洙 | 金光修 | 尹鎭奎 | 姜貴東 | 金秀一 | 盧日瑤 | 徐鍾鶴 | 俞守鍾 | 鄭三泳 | 黃善雄 |
| 李範耕 | | 金貞一 | 李日熙 | 姜秀敏 | 金永佶 | 文昌 | 成正浩 | 李昞準 | 鄭然皓 | |
| 卞鍾吉 | | 金漢奎 | 車英一 | 姜政文 | 金榮吉 | 朴景五 | 宋昌植 | 李圭彩 | 鄭永一 | |
| 許甲道 | 회장 | 南永基 | 崔永才 | 姜鍾源 | 金永壽 | 朴務起 | 申敏徹 | 李龍雄 | 鄭永和 | 총무 |
| 宋文一 | 張清 | 文炯才 | | 高松久 | 金清 | 朴晏孝 | 申昌道 | 李源羽 | 丁殷燮 | 孔漢局 |
| 洪昌洙 | | 朴啓富 | | 權永採 | 金楚三 | 朴永忠 | 辛河根 | 李鍾達 | 諸炳珉 | 金勝彦 |
| 李哲世 | | 朴鍾璋 | | 金幹雄 | 金致得 | 朴眞台 | 沈鐵英 | 李鍾斗 | 曹達坤 | |
| 崔繁英 | 수석부회장 | 朴鑄烈 | 감사 | 金末南 | 金鶴大 | 朴弘一 | 安佳衍 | 林眞富 | 崔永煥 | |
| 韓炳昨 | 李成彬 | 安駿洙 | 金信夫 | 金武助 | 金香運 | 裴大結 | 吳相贊 | 張榮 | 崔泰煥 | |

“구덕동산 떠난 지 벌써 40년 세월이라니...”

제13회 홈커밍 5월 8일 개막

제23회 1~2일, 제33회 1일 오후 5시에

제13회동기회 졸업40주년기념 홈커밍대행사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동기회는 2월 25일 오후 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이범경동문 운영)'에서 장 청회장의 주제로 9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기로 했다.

한편 제23회동기회(회장 김중규)는 졸업30주년 홈커밍대행사를 같은 달 1~2일 이틀간 모교와 해운대

파라디스호텔에서 국내외 동문·가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첫날 오후 1시 모교에서 기념식을 연 후 저녁에는 해운대 파라디스호텔에서 추억의 한마당을 펼친다. 그리고 뒷날에는 모교에서 체육대회를 연다. 또 제33회동기회(회장 윤성국)는 1일 오후 5시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졸업20주년기념 홈커밍대행사를 갖는다.

제5회 새 집행부 출범
이문기 회장 선임



제5회동기회는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부산역 2층 '프라자그릴'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문기동문(형진공업 대표이사·사진)을 신임 회장에, 정진우동문을 감사에 각각 선임했고 김수현총무를 유임시켰다. 정진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일본지역동창회 동문들이 99년 정기총회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회명을 새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동문찾기운동 대대적 전개

일본지역동창회
김광신(16회) 회장 유임

새소명 공모 상금 1만원

일본지역동창회 99년 정기총회가 2월 23일 오후 7시 일본 도쿄의 명당 간자거리의 스노우에서 열려 김광신회장(16회·위 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을 유임시키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동문 10여명이 참석한 조촐한 모임에서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생활이지만 자주 만나 정을 쌓고 동문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귀국동문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올해의 사업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총회의 위임에 따라 공식적인 부회장에 복수제를 도입해 김대욱(18회·쌍용Japan대표취체역) 이 중명동문(19회)을, 감사에 박득송동문(27회)을 각각 선임했고 박영수총무(29회)를 유임시켰다.

한편 총회는 ‘在東京同窓會’라는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상금 1만원을 걸고 새 이름을 4월 10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제16회 회장 홍정길
55명 참석 定總 성황



제16회동기회는 3월 1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그랜드뷔페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홍정길동문(구 포 대성탕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민소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5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개설했다. 정영일동문을 감사로 재추대했으며 부회장 및 이사선임권은 홍신임회장에 위임했다.

제19회 회장 김봉호
총회 열고 임원 개설했다



제19회동기회는 3월 5일 부산 동구 범일동 ‘석화그릴’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봉호동문(동화목재 대표·사진)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용만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 △ 회 장=김봉호
- △ 부회장=공기주 김명수 박동화
- △ 이명호 이성달 황태원
- △ 감 사=김경재 문관진
- △ 총 무=박성규 윤민근

慶南中高第六回定期總會



제6회동기회 99년 정기총회 모습. 임경택신임회장(가운데)이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京釜용마가족 5월 합동잔치

제6회 정기총회서 결의
신임회장 임경택

제6회동기회는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연제구 거제동 ‘코리아나 뷔페’에서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임경택동문(전 동아대 교수)을 신임회장에 선임했다.

박용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임신임회장은 5월중에 부산과 서울의 동문·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심는 한마당잔치를 개최할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았다. 임회장은 최병수총무와 문현순총무를 유임시켰다.

“경제력이 뭐길래... 능력 있으면 사령탑 OK”

제15회 ‘삼고초려’ 끝에 정기문회장 추대... 관행 허파



제15회동기회는 3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뷔페’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정기문동문(코스콤 대표이사·사진)을 선출했다.

안충용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정신임회장은 감사에 최병우 김명배, 총무에 김기평 김판열 윤상준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정신임회장은 앞서 10일 저녁 부산역 앞 ‘장춘옥’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및 이사회 연석회의에서 추대돼 이날

선임됐다. 이날 정동문은 “경제력이 부족해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참석한 자문위원 및 이사들이 ‘후원’키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수락하게 됐다.

보름장학금 전달식

제15회동기회 보름장학회의 99년도 마지막 장학금 수여식이 2월 19일 국제신문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열려 손원호군(동천고3)등 4명에게 4백8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김송평회장이 주재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정 총운영위원과 유영국 감사 등이 참석했는데 보름장학회는 이번을 끝으로 장학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제28회동기회 이사회, 조직활성화와 동문유대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부상조 기틀 조성키로

제28회 이사회
서영대 차기회장 내정



제28회동기회는 3월 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석조릿집’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만중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서영대동문(한마음신경정신과 부원장·사진)을 차기회장으로 내정, 4월 27일(화)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

동 ‘골든뷔페’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서내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인준이 끝나는 대로 우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을 찾아 현황을 알아보고 동기회수첩을 제작,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졸업 후 처음 참석한 동기생 다수가 환영을 받았다.

이사회는 최용석동문이 결속한 입담에서 출발하여 몇 년째 동기회에 봉사해온 양동욱감사의 비디오를 방불케 한 업무 및 회계감사로 끝을 맺었다.

제21회동기회 임원명단

총동창회 부회장
최민석
최재권

강창수
김병수
서덕수

최수명
회 장
전기환

배 일
송태형
신남석

송원경
송재영
정익주

권오균
김기현
김길서

김황세
박성렬
박자민

옥영철
윤대회
윤승근

최장석
최재봉
한광수

총동창회 이사
강수경
송원경
송재영
전기환
정영천

박상기
안채식
이문수
이승현
이재홍
이재화
임경범
장 호
전우성
정영천

부회장
강민우
김한규
김원달
김조영
김효겸
민한식
박현두

오거돈
우종덕
이일상
이재택
이정규
이재호
이종하
이성집
이호석
이 력

최금구
최민석
최현두
한수민
허영도

김대웅
김덕진
김동우
김문창
김영화
김익수
김지호
김창수
김형동
김홍진

김대선
배영일
백경태
변성인
성정근
설광석
송재식
신금봉
안상갑
양병주

이강남
이익규
이종범
정의창
조현영
주홍수
진영길
진영춘
최낙환

한승현
황동규
감 사
이세형
박일송
총 무
변창섭

재경 기별야구 4월 25일 "팡파르"



재경동창회 제31회 기별야구대회가 4월 25일(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운동장에서 새로 발족한 기별야구회(회장 윤승홍·14회·정우재과 회장·사진) 주관으로 개막된다. 일요일마다 열려 오는 5월 30일 결승전을 갖는 올해 대회는 제39회~제41·43·45회 연합이 서전을 장식하는 것을 비롯해 최연장 제17회·단일팀 등 모두 22개팀이 출전한다.

**제17회 등 22팀
중앙대·도농구장서
6주간 대장정
결승전 5월 30일**

대진표에 따르면 4월 25일 4게임과 5월 2일 4게임 등 예선전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운동장에서 갖는다.

또 5월 9일 예선전 6게임, 16일 준준결승 4게임, 23일 준결승 2게임, 30일 대망의 결승전 등은 한빛은행 도농야구장에서 치른다. 한편 올해부터 대회 주관을 맡은 기별야구회는 이사회를 통해 △회장 윤승홍 △부회장 박영무(15회·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박양조(19회·성하정보통신 대표이사) 최광수(20회·경구회장) △간사 최극립(27회) △부총무 이상률(31회) 신동관동문(39회) 등을 각각 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가족동반 천성산 등반 "세상이 발 아래에..." 일오산우회 24명 참석

제15회 동기회 일오산우회(부산) 동문·가족 24명은 2월 21일 강제모산행대장의 리더로 천성산등반을 즐겼다. 이날 산행은 내원사 입구~성불사~집복제(원효대사가 설법을 위해 북을 친 곳)~서창 코스로, 강무상회장 부부를 비롯해 정창환 박호부 임상택 커플과 강제모 김정길 김종광 김황영 권승부 박찬호 신홍규 유경수 이승남 이기준 장중호 정옥중 조무웅 조영일 황춘식 정창용 싱글들이 동참했다.



보름산우회 산인들이 북한산에서 시산제를 올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름산우회도 북한산서 시산제

한편 재경동기회 소그룹들도 일제히 봄맞이 활동에 들어갔다. 보름산우회는 3월 14일 북한산 보현봉약수터 위에서 산우 31명(동기

동문이 펴낸 NEW BOOK

'내려오는 길을 올라가며'

유홍수(11회) 지음



유홍수동문(11회·국회의원·사진)은 바쁜 의정 생활 틈틈이 주변의 여러 실상을 원고지에 옮겨 '내려오는 길을 올라가며'라는 수필집을 펴냈다.

'내려오는 길...'에는 자신의 인생역정-정치 공직 여행 가정 신앙 생활 등을 통해 체험하고 느낀 생각들이 담담히 관조되고 있다.

청년시절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유동문은 지금도 늘 문학청년(?)으로 살고 있다.

유동문은 서문에서 "학창시절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하던 일을

드디어 했다고 공감해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인 나의 입장은 과연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 참된 나의 모습일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도 아리송해지는 것이다"라고 슬화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유동문은 영국 브람스테드와 일본 교토대를 수료했다. 부산·서울 시경국장,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고 일본 스즈카대학 객원 교수로도 출강했다.

제12, 14,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며 현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과 APPF(아태의회포럼) 한국위원단 회장을 맡고 있다.



생26명·부인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99 시산제를 올렸다.

이날 시산제에서 이수신회장은 제주를, 이승우전임회장은 집사를 각각 맡아 북한산 산신에게 올 한해의 무사산행과 동문·가족들의 행복을 빌었다.

보름회는 27일(토) 낮 12시 덕평

CC에서 99 시구회를, 기우회는 28일(일) 오전 11시 사당동의 김해군 동문이 운영하는 '명문기원'에서 53회 바둑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또 경건회는 같은 달 4일 저녁 정기모임을 갖고 보름장학회 기금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고, 강남회는 2월 24일 '안락사고기집'에서 정기모임을 열었다.

새 천년 대비 용마가족 대동제

제30회동기회 5월 중순 개최 예정

제30회동기회는 오는 5월 중순 동문·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하고 21세기 새로운 동기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용마가족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거훈동기회장은 이를 위해 4월

중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지역 동기회와 상호 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최회장은 앞으로 이 모임을 2년에 한 차례씩 열기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0회 봄철바둑대회 열고 "화합중전"

제20회동기회(회장 김대원) 바둑모임인 이공기우회 주관 춘계전선바둑대회가 3월 20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팔성관광 4층 동기회사무실에서 열려 수담으로 우정을 쌓았다.

심두수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진지한 분위기 속에 한 수 한 수 정성을 쏟으며 숨은 실력들을 발휘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1급실력의 문영봉동문이 비행기를 타고 왔으며 국회의원인 김형오동문도 만사를 제쳐두고 행사에 참석하는 등 많은 동문들이 성의를 보여

바둑대회가 한층 훈훈한 분위기였다.

친목회 결성·활성화 방안 개발 제37회 이사회

제37회동기회는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교원공제조합빌딩 18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올해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최기영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친목회 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인석



박 경 숙 (30회 정성원동문 부인)

끼는 것이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의 일이 생각난다. 뭔가 다리를 심하게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화를 낼 참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상대방은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미안해한다. 순간 "괜찮다"며 그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양손에 힘겹게 든 짐을 나눠 들어주었다. 오랜 친지처럼 서 있다가 목적지에 내리는 뒤편에서 들리는 "새댁 고맙네"라는 말에 따뜻함이 묻어 나왔다.

나의 실수, 남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 있으면 때로는 웃을 일도, 마음 따뜻한 일도 있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실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사진: 단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왼쪽부터 아들 재훈, 필자, 큰딸 수진, 정성원동문, 둘째딸 유진.

'헨젤과 그라탕'이라니...

했으니 아이들은 깔깔대고 야단났다. 아빠의 상습적인(?) 실언을 내심 못마땅해하는 엄마 앞에서 세 아이는 평소 말수가 적어 무뚝뚝한 아빠의 실수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

'헨젤과 그라탕'이라니 혹 '헨젤과 그레텔'의 후속편인가.

저녁을 물린 후 남편과 세 아이가 미주앉아 이런저런 관심거리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아빠 '그라탕'이 뭐야?" 마침 저녁거리가 양식이었던 터라 막내가 물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응? '헨젤과 그라탕'도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헨젤과 그라탕?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쏟아내고 아빠가 한 개그를 놓치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연책에 가끔 나오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고기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갑갑해했다.

"아, 그거 '부레보쌈'이다." 남편이 덧붙였다. '부레보쌈'이라고? '부레옥잠'을 두고 이렇게 해설(?)

경남중고 제23회동기회 졸업30주년기념 모교방문행사

일시 : 1999년 5월 1일(토) 오후 1시 ~ 5월 2일(일)
장소 : 경남고등학교 강당, 파라다이스 호텔(해운대)

상임이사

김 훈 박기욱
김영철 최인표
서영수 유동현
감인홍 오윤안
장병규 김경섭
이인근 박재호
옥치범 김성주

회장

김종규
현인호
서울회장 구자섭
총무 이봉철
울산회장 이문희
진주회장 배종순
마산회장 이상렬
총무 박광규

부회장

고한수 이수백
김영화 정상건
김익곤 최광호
백창영 하영곤

준비위원장

박기욱

이사

구대용 남상대 박철수 안병률 이부식
김기열 박문화 박현태 안성민 전상대
김상현 박수갑 방경부 양희택 채행운
김장섭 박윤규 서승환 유진무 최대일
김종구 박재완 손근식 윤만수 최성대
김호경 박철병 신상희 이규봉 하종기

더위에 지치고 길까지 잃어

97년 8월 : 6차 산행은 빼재에서 추풍령까지 한 여름의 더위와 싸워야 하는 먼 길. 산악회관 출발이 유홍석(24회) 회원의 지각으로 늦어지니 오늘 덕산재까지의 산행은 야간산행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번 산행길에는 대학에 재학중인 김봉호(19회) 회원의 아들 동근군까지 참가하니 우리의 뜻이 2세에게까지 이어진다. 한 달 전 도착한 빼재에서 2시간여의 급경사 길을 올라 덕유삼봉(1,264m)에 오르니 저 멀리 지리연봉과 가까이 덕유 능선이 그 장엄한 자태를 드러낸다. 도마치고개 가까이 내려오니 고냉지 채소밭. 대간 마루금이 많이 훼손되었다.

도마치고개에서 대덕산(1,290m)을 오르니 짙은 안개와 어둠이 깔린다.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잠목지대와 급경사길을 거쳐서 덕산재를 내려오니 밤 9시경. 야영준비를 하고 식사를 마치니 자정이 가까웠다. 새벽 1시경 서울서 이명규(24회) 회원과 백두대간 길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나선 비회원인 이성원(22회) 동문이 도착했다.

2일째 : 질매재까지는 하루에 가는 대간길로서는 가장 먼 거리. 부항령을 지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갈라져 나가고 만나는 삼도봉(1,177m)에 도착했다.

길이 멀어 선두조와 후미조로 나뉘어 가기로 했다. 선두조는 필자와 오기목(23회) 안형수(24회) 하대용(28회) 남기태(31회) 대원. 먼저 질매재에 도착해 야영준비를 하기로 했다. 후미조는 이명규(24회) 대원이 조장이 되어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운행하기로 했다. 선두조가 저녁 9시경 질매재에 도착하니 서울 회장인 이충덕(23회) 이현국(24회) 회원이 반갑게 우리들을 맞이한다. 밤 11시경 후미조 도착으로 마음을 놓았다.

3일째 : 질매재를 거쳐 바람재에 가까이 오니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린다. 중식시 필요한 물을 떠러 간 김준영(28회) 남기태(31회) 대원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두 시간여 동안 두 대원을 찾아 해마다 명찰 직지사를 품에 안은 황악산(1,111m)을 오르고 퀘방령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린다. 바람재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두 대원이 물을 떠오다 안개 속에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백두대간 종주기 구덕산우회

> 2 <

덕유산~속리산

오기현

제20회
구덕산우회 산행대장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97년 6월 4차산행중 경남 함양군 서상면과 전북 장수군 계내면을 잇는 육십령고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밤 12시에 저녁식사 추락사고로 입 크게 다쳐 옥수수동동주 파티 암릉지대 야간 돌파

4일째 :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 3일간 잠목을 헤쳐나오면서 상처 난 팔과 다리가 아린다. 눌의산(743m) 정상에 도착하니 철도 고속도 국도가 같이 지나는 유일한 고개길 추풍령이 보인다. 들뜬 마음에 나무가 시야를 가려 한발 내딛는다는 것이 아찔! 4~5m 절벽에 떨어져 입술 주위가 찢어졌다. 뒤따라오던 의사인 서영대(28) 대원이 지혈을 하고 외과의인 김준영(28회) 대원이 구급함에서 수술기구를 꺼내 봉합을 했다.

97년 9월 : 대간길을 3분의1 정도 주파. 12명의 대원은 11시경 추풍령 고개를 출발, 묘향산을 향했다. 대간 마루금을 너무 고집한 나머지 독도에 작오가 생겨 1시간 넘게 되돌아오는 야간 산행. 용문산과 국수봉을 지나 큰재에 도착하니 저녁 8시30분경. 폐교가 된 인성분교에 야영지를 정하고 막영과 취사 끝에 소주잔을 기울였다.

2일째 : 전형적 야산구간인 지기재에 도착, 사과밭 야영으로 식사 종료. 서울에서 이충덕(23회) 회원 등 4명이 도착했다.

3일째 : 야산지대라 독도의 어려움이 많았다. 신의테고개와 윤지미산을 지나 화령재에 도착하니 오후 4시경. 황간역 앞에서 유명한 울갱이국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부산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경.

97년 10월 : 중부지대의 명산 속리산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회원들이 참가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15~20명이나 됐다.

봉황산(740m)을 지나 비재에 도착, 중식을 하고 오후에 쓸 물을 보충하기 위해 그동안 물 조달에 제일 고생한 남기태 대원을 쉬게 하고 필자가 물을 떠오니 이창흠 회장 이하 대원들이 신경이 쓰이는가 보다.

삼형제바위와 형제봉 정상에서 명산 속리산을 조망하며 피악재에 도착했다. 혼자서 대간을 종주하는 서울의 산악인과 의논하여 텐트 칠 자리를 잡았다. 윤두일(24회) 김보상(28회) 남기태(31회) 대원을 시켜 만수동 마을까지 내려가 물을 떠오게 했더니 옥수수동동주를 물만큼 지고 올라왔다. 동동주에 우정이 익어갔다.

2일째 : 속리산 천황봉(1057m)을 향해 가는 길에 중앙대 산악부와 조우, 산행경쟁이 벌어졌다. 격려차 약간의 장비를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했다.

급경사 계단을 올라서 12시경 천황봉 정상에 도착. 속리산 천황봉은 남한 3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의 분수령이며 백두대간에서 한남 금북정맥이 가지는 대간상의 중요한 지점이다.

입석대를 지나 세조가 올라와서 글을 지었다는 문장대에 도착했다. 고2 겨울, 혼자서 적설등반중 신발이 찢어 말린다고 불 옆에 놓아둔 신발이 타서 다음날 새끼로 동여매고 천황봉으로

겨울 화개행

박치환

(제 30화·시인·브나엘고 교사)

쌍계사 쪽 골짜기 따라
온갖 그리움을 휘몰아치는 설달 골바람에
벌거벗은 수목들 서로 부벼대며 수습하는 듯
신음 소리 가득한 겨울 숲을 지나 한해가 저물고
응달진 곳에서 서릿발같은 외로움이
허연 이빨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벌렁한 주막 앞 불두화 나무 꼭대기엔
길 잃은 바람 하나 걸려 종일 휘파람 부르고
속절없이 주고 받는 술잔에
불쾌해진 얼굴로 늘어 놓는 넋두리들
철지난 낙엽처럼 인적 드문 한길을 서성대고 있었다.
뭔가 하염없이 기다리며
조금씩 할 말 잃어가고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예감에
자꾸 뒤돌아 보는 눈길 너머로
길을 가로 막듯 우뚝 우뚝 솟아나는 산들.
생각할수록 뼈 속까지 얼얼한 기억 몇개
마져 털어버리고 가면
손에 쥐이는 건 싸한 어둠 뿐인데
묵묵부답의 산 쪽으로 문득
몸서리치도록 아득한 이름 하나 부르면
누구였을까.
화개 십리 길 빛나무 가지 가지의 이름다운 선들
아슬하게 빙구며
수천 수만 마디의 그리움 목소리로 울날리기 시작한 눈들.
함박눈은 흰 갈기 휘날리며
기억의 빈 가지마다
가득 사월의 벚꽃을 그려 넣고 있었다.

조출한 잔치에 고운 정 넘실

통영 임성철 회장 유임



통영지역동창회는 3월 16일 오후 7시 경남 통영시 향남동 '영동식당'에서 동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역회는 1월 19일 오후 7시 이곳 무전동 동부식당에서 99

년 정기총회를 열고 임성철(14회·총련여상 교사·사진)회장을 유임시켰다.

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14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재신임했다. △회장=임성철(14회) △부회장=장동무(18회) 박우중(21회) 박준배(30회) △감사=탁원령(12회) △총무=김의연(33회)

중주하면서 고생고생한 기억이 새롭다.

문암장에서 밤티재까지는 백두대간 중의 난구간의 하나로 암릉이 이어져 약간의 클라이밍이 필요한 구간이다. 밤티재에 도착하니 비가 내린다. 그래도 우리는 야간에 암릉지대를 헤쳐 놀재에 도착했다.

3일째 : 어제의 고된 산행으로 출발

이 늦어졌다. 1시간 정도 오르니 전망대 바위가 나왔다. 1시간 더 급경사길을 오르니 청화산 정상. 산행 속도가 느리다. 갯바위재에 도착한 후 중식을 하고 계획을 의논했다.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가기 힘들어 대간산행중 처음으로 계획을 변경, 다음 달로 미루고 하산했다.

(계속)

우편발송대행

주소입·출력 100명에 2만원!

주소 쓰라
봉투넣으라
우체국도 가야하고
다른 일도 바쁘는데
:
이젠 걱정없습니다.
주소 쓰기에서 우체국 접수까지
신·속·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대표 안보 (제28회 기우회 총무)

高品質 印刷의 名家
인쇄마당 전화(051)464-6626
팩스(051)464-5674
이통(017)558-8211 호출(012)523-8211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30-3(서라벌호텔뒤)

일본지역동창회

東京

- 安庸熙(3회)=千葉県市川市東菅野1-30-7
- 孫炳泰(4회)=宮入バルブ製作所 社長, 東京都中央区銀座 1-2-1 東京高速ビル206号
- 尹春貴(4회)=東京都田無市谷戸町2-2-3-1215
- 徐鐘泰(5회)=東京都足立区扉 3-2-6
- 金榮璉(5회)=多摩整形外科 院長, 神奈川県横浜市緑区美しが丘 2-6-20
- 李東燮(6회)=(有)淀商事 代表取締役, 東京都文京区向丘 2-15-13
- 金奉根(8회)=(有)岡 代表取締役 會長, 東京都豊島区大塚 2-6-10
- 金榮洙(8회)=株式會社 新成ジャパン 代表取締役, 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 1-7-10 山京ビル別館8階
- 辛宣浩(9회)=株式會社 サンサス 代表取締役 社長, 東京都港区西新橋 1-17-8 須田ビル
- 權奇卓(13회)=株式會社 東洋興信所 代表取締役, 東京都豊島区西池袋 1-32-8 青木ビル7階
- 安正行(13회)=双葉貿易(株) 社長, 東京都品川区八潮 5-6-35-101
- 金光信(16회)=(株)サンバック 代表取締役 専務, 東京都文京区小石川 1-13-12 ベルスクエア小石川 7階
- 李在隆(16회)=在日大韓基督教會 東京ベテスタ教会 担任牧師, 東京都葛飾区小菅 4-14-13 2階
- 金大都(18회)=(株)雙龍ジャパン 代表取締役, 東京都港区新橋 5-22-10 松岡田村町ビル7階
- 李鐘明(19회)=社團法人 韓國船級東京事務所 所長, 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 4-6-10 サトービル 5階
- 金址昌(23회)=雙龍建設(株) 東京支社 支社長, 東京都港区新橋 5-22-10 松岡田村町ビル 7階
- 李根培(24회)=ハンビット銀行 東京支店 副支店長, 東京都港区虎ノ門 2-1-1 商船三井ビル 1階
- 朴得松(27회)=YTN 東京支局, 東京都港区赤坂 5-3-6 TBS放送 13階
- 具滋源(28회)=國民銀行 東京支店 次長, 東京都千代田区有楽町 1-7-1 有楽町電氣ビル 北館14階
- 姜炳哲(29회)=Greenwich NatWest, Director, 東京都中央区日本橋箱崎町 36-2 リヴァサイド読売ビル
- 朴永守(29회)=ダトエイショッピング株式會社 代表取締役, 東京都中央区八丁堀 2-20-1 藤和八丁堀ビル 8階

- 韓承東(29회)=ハンギョレ新聞 東京事務所 特派員, 東京都新宿区西新宿 7-19-22 ダイカンプラザシティ317号
- 申九東(30회)=韓國重工業(株) 東京支店 次長, 東京都港区三田 1-4-28 三田國際ビル307号
- 鄭圭弘(30회)=三星火災海上保險(株) 東京事務所 所長/部長, 東京都中央区日本橋浜町 2-31-1 浜町センタービル 18階

大阪

- 姜周洪(7회)=(株)神農工研 代表取締役 社長, 大阪府大阪市平野区加美北 2-5-62

其他

- 朴永敦(3회)=神奈川県横浜市中区諏訪町16番
- 丁銀根(8회)=兵庫県姫路市飾磨区三宅 1-105
- 張健浩(26회)=東京國際大學 商學部 教授, 埼玉県川越市市場北 1-13-1
- 李眞昊(38회)=(財)高温高压流体技術研究所, 香川県高松市林町 2217-43

제 5 회

- 權赫七=3월 19일 별세

제 6 회

- 李熙文=2월 23일 경남여고 교장 정년퇴직
- 鄭德桓=2월 23일 동아대 의대학장 정년퇴직
- 林警澤=2월 23일 동아대 환경과 교수 정년퇴직
- 鄭敬圭=2월 23일 부산대 교수 정년퇴직
- 千山茂=2월 23일 금성고등학교 교장 정년퇴직
- 崔成海=2월 23일 동명정보고교 교장 정년퇴직
- 金泰坤=2월 23일 대신중 교장 정년퇴직
- 金鍾喆=2월 23일 브니엘여고 교감 정년퇴직
- 李鍾泰=2월 23일 부흥중 교사 정년퇴직
- 金奉圭=3월 2일 지병으로 별세
- 陳永鎬=3월 6일 부친 별세

제 7 회

- 金水經=3월 9일 모친 별세

제 8 회

- 金宇城=3월 13일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아들 결혼
- 文炳佑=2월말 교직생활 마감하고 퇴직
- 嚴德良=2월말 교직생활 마감하고 퇴직

어디서 무엇을

- 李成鎬=(전화변경)051-504-0516
- 金炯璧=한인경제협력위 위원장, 2월 29일~3월 14일까지 뉴델리 회의에 참석.
- 廉炳泳=2월 27일 연세동문회관에서 차녀 결혼
- 尹泰永=(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리 172-1 용인 죽전 아파트 106동 506호, 0331-262-1178

제 10 회

- 金靈燁=(사무실)02-958-5320, (자택)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 아파트 7동 1201호, 02-538-6180
- 裴太基=(자택)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8-4 금강아파트 907동 1304호, 0343-396-7030
- 吳基文=(사무실)02-2268-3836, (자택)서울 은평구 대조동 65-8, 02-384-6692
- 조규일=(사무실)02-940-5351, (자택)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392-13 전원우정아파트 1동 504호, 0357-542-4931

제 11 회

- 金禎洙=1월 23일 서울 웨딩갤러리에서 차남 결혼
- 裴一圭=1월 30일 코모도호텔에서 차녀 결혼
- 秋光善=2월 24일 모친 별세
- 李連好=(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 109동 1802호, 051-701-6495
- 李聖光=3월 13일 부산 영락교회에서 장남 결혼
- 朴聖佑=박성우회계사 사무소, (사무실 이전)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7-3 동산빌딩 302호, 051-465-6272,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2동 1508-16 크라운빌라 301호, 051-747-6800
- 金垵五=3월 29일 별세
- 劉洪鍾=삼조유화(주) 대표이사 취임, 02-541-2122

제 12 회

- 郭三德=삼환산업사 대표, 동기회 용마테니스회 회장으로 선임
- 金益道=울산지역동창회 회장, 3월 10일 이동숯불갈비집에서 동기회 모임 주선
- 金眞豪=포항문화방송(주) 대표이사, 3월 12일 포항문화방송국 대강당에서 33년 MEC 방송생활을 마감

- 하고 정년퇴임식 가짐
- 金采生=울산 여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052-273-2308
- 潘昌鎭=연산경찰서 서장, 지방경찰청 정보과장으로 경찰생활 30여년 마감하고 2월 20일 명예퇴임
- 林正明=부산대학교 건축과 주임교수, 3월 16일 장남 결혼
- 蔣昇在=(자택)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107동 702호, 052-271-4383
- 崔柄俊=남해사주유소 대표, (자택이사)울산 북구 상안동 쌍용아파트그린타운 215동 1001호, 052-298-0089

제 13 회

- 李景宰=3월 6일 마산 창원관광호텔에서 장남 결혼
- 鄭淳着=3월 9일 서울 공향터미널 3층에서 장남 결혼
- 徐鍾鶴=3월 14일 대구파크 호텔에서 차녀 결혼
- 金壯雄=3월 28일 서울 노보텔엠베스트에서 차녀 결혼

제 15 회

- 金敬又=(주)롯데햄 본사 영업본부장(상무이사), 02-3479-5014
- 金明洙=동명상사 전무, 사업차 미국 시카고에서 귀국, 02-2299-0047
- 金秉浩=(주)아진이엠스 대표이사 회장, 재경 용마펜클럽 회장에 재선, 02-557-6159
- 金雄世=하이컴정보통신 부회장, 051-531-0930
- 朴基義=KBS본사 보도본부 보도위원으로 원래 복귀, 02-781-4226
- 朴哲陽=MCI(주) 머큐리건설 대표이사, 2월 6일 하림사에서 장남 개념군이 일본여성과 국제 결혼, 02-477-9091
- 成漢杓=한겨레신문 부사장으로 승진, 02-7100-101
- 李泰昌=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전보, 062-224-0077
- 鄭大圭=남북회담 사무국장, 02-725-6928
- 千文碩=연세대 천문대기과학과 교수(천문학 박사), 연세대 천문대장 임명, 02-361-2685
- 韓永夫=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주임교수 겸 치주과과과장(의학박사), 02-760-3858
- 許宗憲=중한아금(주) 대표이사 겸 중국아금진출구총공사 한국고문으로 사업시작, 02-552-6868

제 16 회

- 동기회원 수첩 제작 준비중입니다. 신상이동변경 있으신 회원은 연락바랍니다. 051-248-0016
- 權錫東=대연양행 대표, 02-557-8881, (사무실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840 삼성빌딩 302호
- 權義剛=30년 Mitsubishi Man 청산, (자택)02-3442-3185
- 金鄉德=3월 26일 별세
- 金星燁=변호사, 02-773-2025, (사무실이전)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0 대한일보빌딩 303호
- 金良和=부산 MEC 라디오 광고제작 국장, 011-838-0038, 4월 24일 오후 2시 남천성당에서 장녀 결혼식
- 金英夫=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교수, 051-240-7712, (자택이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350 경동아파트 101동 1504호
- 金煥佑=김해 이작초등학교 교사, 0525-335-9773
- 金龍文=3월 4일 별세
- 金昌熙=동방미래화학(주) 화장품사업부장, 0339-353-4497
- 文春三=(자택)서울 용산구 한남동 632-2 8/7, 02-798-4983
- 文亨植=(주)코베트마린 대표이사, 051-254-5291~3, 3월 24일 모친 별세
- 朴秀雄=삼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 02-772-1704
- 裴長洙=라코스테대리점 경영,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4층, 02-868-8152
- 徐炳雄=(주)세진프라스틱 전무이사, 0525-345-6616~8
- 孫石植=명보세라믹스(주) 대표이사, 02-3474-0901, 3월 26일 재경동기회 일육골프회 신입회장에 선출
- 安寅煥=한세바이오텍 대표, 02-527-4875~6
- 嚴柱益=캐나다 토론토에서 안부전화, 곧 귀국예정
- 李光彬=Supreme Tech, International 대표, 02-558-7605
- 李圭芳=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966-0564~5
- 李明洙=신우바둑 게임, 부산 남포동 오소약국 5층, 051-248-0509
- 李武榮=아시아텍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기에게 격려전화를 합니다, 016-574-7180
- 李世培=대상(주) 상무이사, 군산, 0654-469-2222
- 李玄煥=KBS심의평가실 평가위원, 02-781-3081, (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9-7, 0344-903-3922
- 田茂甲=(주)동이섬유 대표이사, 0357-33-6700~1, 4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잠실 향균회관 연리지에 식흥에서 장녀 결혼
- 全正則=우선전자통신(주) 대표이사, 02-548-2536~7, 재경일육골프회 사무총장으로 선출
- 鄭益信=(자택이사)서울 서초구 반포동 30-18 삼호기든맨션 라동 705호, 02-535-0567
- 鄭太拾=부산남부경찰서 경무과장, 051-621-2234

동창회보 광고협찬 안내

대기업체와 달리 중소기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광고매체들의 높은 광고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년에 10번 발행되고 있는 동창회보는 전국, 해외지역에 있는 동문들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051)245-7551~2
팩스(051)245-7550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趙道梓=현대기술투자(주) 부사장. 02-752-8300
 曹昌國=(주)코솔라 엔지니어링 회장. 051-754-7878
 崔根淑=부산도시고속도로 반여요금 소장. 051-523-3845
 崔秀雄=화인엔지니어링 대표. 0431-232-6209
 秋成坤=(주)PINE화랑 대표이사. 011-229-1549
 韓利憲=국회의원. 02-784-3851. 4월 2일 경주도투락월드에서 지구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 의정보고회 성료
 許鍾旭=한국기술금융(주) 대표이사. 02-370-1114
 洪正吉=동기회부회장. 일월운수(주)대표이사. 051-523-8680~1.

제 19 회

金允基=지난 12월 22일 수영로교회에서 장녀 결혼. 051-806-5571
 金富煥=3월 1일 수영로교회에 장녀 결혼. 051-554-1011
 盧泰圭=(주)대지산업 대표이사. 051-256-4007~8
 文官珍=우리상호신용금고 이사. 051-336-5252
 朴根實=051-622-8829. 011-562-8829
 朴東華=부산명물횃집 대표. 051-246-0587
 朴聖柱=(주)서영통상 대표이사. 051-254-3888
 朴榮梯=독일 선금협회 울산소장. 052-252-4018
 朴在杰=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 051-553-5578
 朴在現=남일운동구사 대표. 051-245-1906
 朴鍾華=(주)광명 대표이사. 051-621-8163
 朴鉉局=동국대학교 한의대 학장. 051-632-7194
 裴永九=배영구내과의원 원장. 051-868-6668
 裴武三=한국민속연 연구소 소장. 051-554-6475
 白弘基=대성기업 대표. 051-516-6544
 石武官=천연레포츠타운 대표. 051-632-7878
 成樂出=진영단감농장 경영. 051-622-9570
 成煥震=김해 국제공항 200호실 실장. 051-972-1113
 宋德奎=051-746-1203
 辛尙建=(주)한국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051-631-4431

제 20 회

朴炯準=박형준내과의원 원장. 3월 5일 이전개업. 부산 연제구 연산9동 400-26. 051-757-0832

金信記=동국제강 형강공장 공장장 (이사급) 0562-271-5600

제 21 회

姜三泰=국세청 특별조사1 담당실. 051-750-7200
 姜昌洙=대경명란(주) 대표. 부산 서구 서대신동 051-255-7211
 權永珣=울산공대 교수. (자택이사) 울산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동아아파트 103동 905호. 052-242-0785
 金秉洙=부산해양금융 대표. 051-466-6892. 3월 28일 장녀 결혼
 金憲=현대건설(주) 현장소장.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051-722-4845
 朴銘文=북부산세무서 세원관리계. 051-310-6200
 徐德洙=계원무역 대표. 051-465-7855. 지난 12월 27일 장녀 결혼
 尹承根=경남화원 대표. 부산 서구 토성동 토성상가내. 051-246-0804
 李小堉=팔성관광 이사. 부산 중구 중앙동. 051-469-7731
 林明雄=신성감정 대표. 서울 종로구 견지동. 02-722-4087
 曹炳奎=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573. (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부곡3동 선경아파트 101동 406호. 051-581-1795
 崔洛桓=영재교육연구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051-203-2300
 崔鉉斗=한영상사 대표. 051-293-1666. 한국 아메리칸 풋볼 협회장 취임

제 22 회

金基衡=(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8 대우2차아파트 207동 1601호. 051-701-2951

제 23 회

姜昌洙=(주)옥시마케팅 이사. 2월 3일 모친 별세
 具滋燮=LGMMA 대표이사. 1월 31일 모친 별세
 權吉俊=주택은행 망원동 지점장으로 전보. 02-322-6143
 金東旭=(자택이사)서울 송파구 송파2동 삼익아파트 203동 709호
 金成珠=(자택이사)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강촌아파트 101동 1502호. 02-797-1462
 金勝信=대우자동차 퇴직. 011-456-1916
 金重植=맥스아트 대표. 02-3443-2480. 019-257-1308
 金眞燁=(자택)서울 서초구 우면동 11-1 해릉파크빌리지 303호. 02-574-8903. 011-869-6980
 朴鏞吉=IBM 부장. 2월 27일 부친

어디서 무엇을

별세
 任英一=볼보건설 기계코리아 남부지사장. 02-3453-4001
 韓進洙=동아일보 사회부장. 02-361-0270
 黃鍾元=(자택이사)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3동 206호. 02-402-9833. 017-391-3279
 許正秀=(자택)서울 강남구 청담동 104-2 LG빌라 601호. 02-515-1980
 尹炳祚=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2국장 부임. 02-744-6114

제 25 회

李佑錫=삼성종합화학 홍보이사. 02-772-6688. 3월 22일 장모 별세
 鄭凡植=2월 17일 숙환으로 별세

제 27 회

李鍾贊=외환은행 영도구 동삼동지점장으로 승진. 051-462-0386
 金泰佑=동기회 회장. 국제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업무 활동
 金慶辰=온천장 허심청 나이트클럽 감사. 4월 8일 오프. 051-558-4466. 011-572-5200

제 28 회

전국의 동기 신상, 변동 소식은 鄭仁植 총무(동기회수첩, 동기회보 제작담당)에게 연락바랍니다.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39-1 정인갤러리. FAX.051-247-9663. 017-565-8202
 金鍾聖=(주)루키스 대표이사. 02-783-0444
 金千根=지성 명리 상담실 개업. 051-557-3690
 金東守=(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 102동 803호. 051-746-6650
 南洋元=한진 서울 중부지점. 017-392-6369
 姜賢安=울산지법 부장판사. 052-228-8426
 裴貞煥=부산은행 부곡3동 출장소장. 051-514-9711~2
 朴炳俊=박병준 세무회계사무소. 051-462-0203
 朴炳坤=부산일보 정치부장. 051-461-4105
 金光洙=중소기업은행 그만두고 사업구상중. 051-623-4105
 沈載喆=(주)한림 대표이사. 051-242-0133~5
 裴孝普=교통사고로 부산 춘해병원 414호에 입원가료중. 김용진동기

가 주치의로 애쓰고 있음. 051-645-8971
 李京抱=대륙제과 대표. 051-244-9457
 李元哲=법무법인 국제. (사무실 확장이전)부산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7,8층. 051-463-7755
 전진학=춘천에서 전진학치과의원 운영중. 0361-253-4877
 최용석=(주)그린푸드시스템 영업이사. 051-441-7350
 文炯才=대한투자신탁 남천동지점 지점장. 051-628-7707
 趙鉉泰=대한투자신탁 해운대지점 지점장. 051-702-7100
 韓秀範=(주)현대석유화학 이사로 승진. 0445-681-5162
 宋幸奉=이번 입사에서 장남이 서울 대 합격
 黃世淵=(주)한진중공업 구매1팀장. 051-410-3201
 황용진=하승실업 대표이사. 051-803-3071
 黃長斗=국민카드 부산지점장. 051-466-5225
 李大植=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1-510-2550. (자택)부산 남구 대연3동 대우그린아파트 103동 101호. 051-623-0398

제 30 회

金昌範=LG증권 울산지점 지점장. 울산 남구 달동 886-6 동선빌딩 3층. 052-272-7722. (자택)울산 남구 무거2동 우주로아파트 101동 601호. 052-249-1665
 具義本=진주 경성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 취득. 051-266-2575

제 32 회

金源根=동양화재 북부산지점 덕천 영업소 소장. 051-342-7713
 金富民=랜드21(주) 대표. 부산 부전동. 051-809-7889
 金和範=부산진구 기동대 중대장. 051-808-4113
 權京鉉=대연문화사 대표. 부산 대연동. 051-611-0720
 高桂裁=기영가공(주) 과장. 부산 신평동. 051-208-5001
 金光熙=토성초등학교 서무과 과장. 051-253-1944
 문창진=(주)대우약품 부장. 부산 연산동. 051-866-7994
 李秉準=삼성안과의원 원장. 부산 당리동. 051-204-2275
 李南揆=비바체나이트클럽 대표. 부산 압남동. 051-247-3823
 李官雨=로엔걸즈 대표. 부산 사직동. 051-502-5556
 李雄吉=동서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051-320-1668
 芮同海=주택은행 괴정동지점 과장.

051-202-0171
 全哲弘=H.O.W컴퓨터 대표. 부산 초량동. 051-441-6888
 田成黃=(주)만수 대표. 부산 남부민동. 051-248-2345
 鄭賢相=골든웨딩포토 이사. 부산 광복동. 051-246-1147
 崔炳石=진명 P.V.C 대표. 부산 청룡동. 051-508-6781
 許秀喆=(주)창성 차장. 김해. 0525-327-3500
 韓文進=(주)네비게이트해운 이사. 부산 중앙동. 051-464-1100
 金泰弘=대신학원 부원장. 부산 온천동. 051-557-3967
 팽현준=(주)대우자동차 대연동지점 지점장. 051-628-0111
 김창수=월드전자 대표. E-마트 3층. 051-310-0312
 金鍾聲=(주)일도공업 건축부 이사. 부산 재송동. 051-781-6855
 權昶根=일본에서 귀국. (자택)부산 금정구 청룡동 경동아파트 106동 404호. 051-508-6731
 金大郁=대신공업사 차량검사소. 부산 감천1동. 051-291-8000
 金大植=동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학부장. 051-320-1582
 金在薰=훈과운소아과 원장. 부산 좌동. 051-362-0979
 白榮泰=(주)만송산업 대표. 부산 주례동. 051-315-6875
 林仁燮=충무동 동사무소 사무장. 051-254-0514
 李圭鳳=체신금융진흥회. 부산체신청 11층. 051-464-9990
 嚴孝宣=엄치과의원 원장. 부산 사직동. 051-501-0979
 崔海植=반여중학교. 051-784-0020

제 37 회

黃昶植=대신학원 종합반 영어담당. 2월 21일 첫딸 예은양 출산. 016-692-0144
 金亨基=현대자동차 딜러. 051-266-3666. 011-563-0090
 鄭相均=미래여행사 개업. 051-469-1182. 018-577-6000
 황태운=씨밀락분유 영남총판. 051-254-1341. 017-561-1341
 李珉浩=품앗이 교육. 아이맘 미술 교재 직접 제작 유통. 051-313-0155~7. 017-558-8283
 姜聲玉=대영인쇄. 부산 중구 대청동. 051-247-5631. 017-560-5495
 金永坤=김영근내과의원 개원. 051-263-0232~3
 梁淳男=르네시메. 3월 15일 아들 출산. 051-319-9703. 011-854-6010
 成昌洙=성창수치과의원장. 부산 서구 동대신동. 051-247-7123.

제22회 동기회 임원명단

◎ 고 문
 강봉기
 강윤범
 김만성
 김영진
 김원주
 김영수
 김종수
 노승철
 박언표
 박성열
 박재상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우덕현
 유재진
 허인석
 황영환
 ◎ 명예회장
 강성봉
 ◎ 회 장
 구자룡
 ◎ 부회장
 김도살
 김학균

노세현
 변대석
 손경윤
 송철규
 이치백
 정상수
 장영근
 ◎ 이 사
 금명환
 김경태
 김동욱
 김성재
 김일봉
 김진영

박귀웅
 박승목
 손연모
 안진환
 이상기
 이재환
 이철용
 정도인
 장성복
 주우실
 최일용
 한창길
 ◎ 감 사
 강호일

◎ 총무단
 김기형(섭외담당)
 김종수(재무담당)
 손용섭(기획담당)
 ◎ 구역회장
 강봉기
 (서·중·동·영도구)
 김원주
 (남·해운대·수영구)
 김영진
 (동래·금정·연제·부산진구)
 박홍식
 (사하·사상·북·강서구)

◎ 돌돌산우회장
 장영근
 ◎ 돌돌기우회장
 최일용
 ◎ 돌돌골프회장
 김만성
 ◎ 돌돌낙시회장
 손용섭
 ◎ 서울지역회장
 김창해
 ◎ 마산·창원지역회장
 강상대
 ◎ 울산지역회장
 박홍조



노인들에게 '청춘국밥'을 무료접대하고 있는 박인재 동문.

매월 두차례 노인들 점심대접

행복만들기



노인들이 '돼지꿈' 출몰 가득 매운채 점심을 즐겁게 먹고 있다.

박동문은 지난해 11월말 건축회사를 그만 두고 '내 사업'을 위해 국밥집 20년 경력의 어머니로부터 자문을 받아 삼겹살과 갈비전문집 '돼지꿈'을 차려 사장이 됐다. 특히 그가 이같은 용단을 내린 것은 평소 아버지가 "돈을 벌면 노인들을 도와드리라"는 당부가 좌우명처럼 되었기 때문.

장사는 놀랄 정도로 잘 되어나갔다. 주위에서는 IMF 때문에 힘들다고들 푸념하지만 '돼지꿈'에는 항상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손님이 들끓었다.

그는 이 무렵 52세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남을 도와라'는 당부가 머리속을 번갯불처럼 스쳐갔다. 며칠 동안의 궁리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 한 달에 첫째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0세 이상 노인 2백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한다 △ 2월 2일을 디테이로 한다 △ 국밥 이름은 노인

그러나 인덕이 있는 것일까. 주위에서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의 동아대 학생들을 비롯해

갈비전문집 '돼지꿈' 내집 같이 연출 사화에 이익 되돌리고 '이웃사랑' 실천

박인재(41회)

약관 30세에 사장반열에 입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박인재동문(41회). 부산 하단 동아대 가까운 곳에 '돼지꿈'(202-7926) 간판을 내걸고 삼겹살과 갈비 등 돼지고기전문점을 차렸다. 평소에는 일반손님들에게 싼값으로 넉넉한 고기를 내놓으며 그저그만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신뢰를 쌓고, 특히 60세이상 노인들 2백명을 매달 두차례 초대해 무료로 점심을 대접한다.

박동문은 이들 노인들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돼지국밥을 특별히 장만하느라 진땀을 빼지만 늘 즐겁다. 그는 노인들이 이 국밥을 드시고 힘을 내며 젊어지라고 국밥이름을 '청춘국밥'으로 지었다.

한번에 2백여명 들이닥치기도 힘내시라고 '청춘국밥'으로 이름붙여 목욕서비스 위해 샤워시설 공리

들이 힘내시고 젊어지시라고 '청춘국밥'으로 한다 등 골격을 확정했다.

가게 입구에 안내광고 한 장 붙여 놓았는데 당일에 1백50여명의 노인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놀란 것은 물론이고 접대하느라 분간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돼지국밥을 대접한다고 하니 노인정에서 단체로 들이닥친 거예요."

또한 어떻게 알았는지 연산동에서도 왔다. 멋진 옷을 입은 노인도, 택시를 타고 오는 노인도, 몸냄새가 나는 노인도,

초라한 행색의 노인 등 여러 층이다. '청춘국밥'을 먹으려고 해당일만 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단골(?)도 수십명이 나왔다.

어쨌든 그는 항상 즐겁다. 메뉴에도 없는 '청춘국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접하는 날에는 눈코 뜰 사이가 없다. 매월 두 차례에 드는 비용은 2백만원선. 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메뉴(?)의 요리사와 배달원 등 손부족이 더 큰 고민거리가 됐다.

자영업업을 하는 그의 친구 등이 자원봉사를 해줘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집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이곳에 오면 즐거움과 만족감,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따뜻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많은 노인들을 볼 때 음식대접도 좋지만 청결 유지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무료 샤워시설을 실현시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조그만 실버타운 건립의 꿈도 꾸고 있다.

자원봉사축제 장려상

특히 박동문은 지난해 12월 5일 부산 시로부터 '98 자원봉사대축제' 활동에서 크게 기여한 공로로 장려상을 받았다.

지리산 등반대회 계획 제8회 재경동기회

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이창규)는 3월 18일 오전 12시 서울 서초동 정일품에서 임원회의를 개최, 새로 영입한 명예이사들을 환영했다.

골프 우승 김호석·김정희씨

△잔디회는 3월 4일 오전 11시30분 안성CC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남자부 우승은 김호석·준우승 홍기성·3등 이창근·행운상 이유환동문이, 여자부 우승은 김정희·준우승 장은아·행운상 권정옥씨 등이 차지.

팔봉회 도봉산서 시산제

△정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3월 6일 조윤제 서영욱 김태용 홍기성 이희순 김영학 정규철 노재복 박성재동문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산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한편 산우회는 늦봄이나 초가을 쯤 지리산등반대회를 열 계획이다.

신현호(14회)

칼럼집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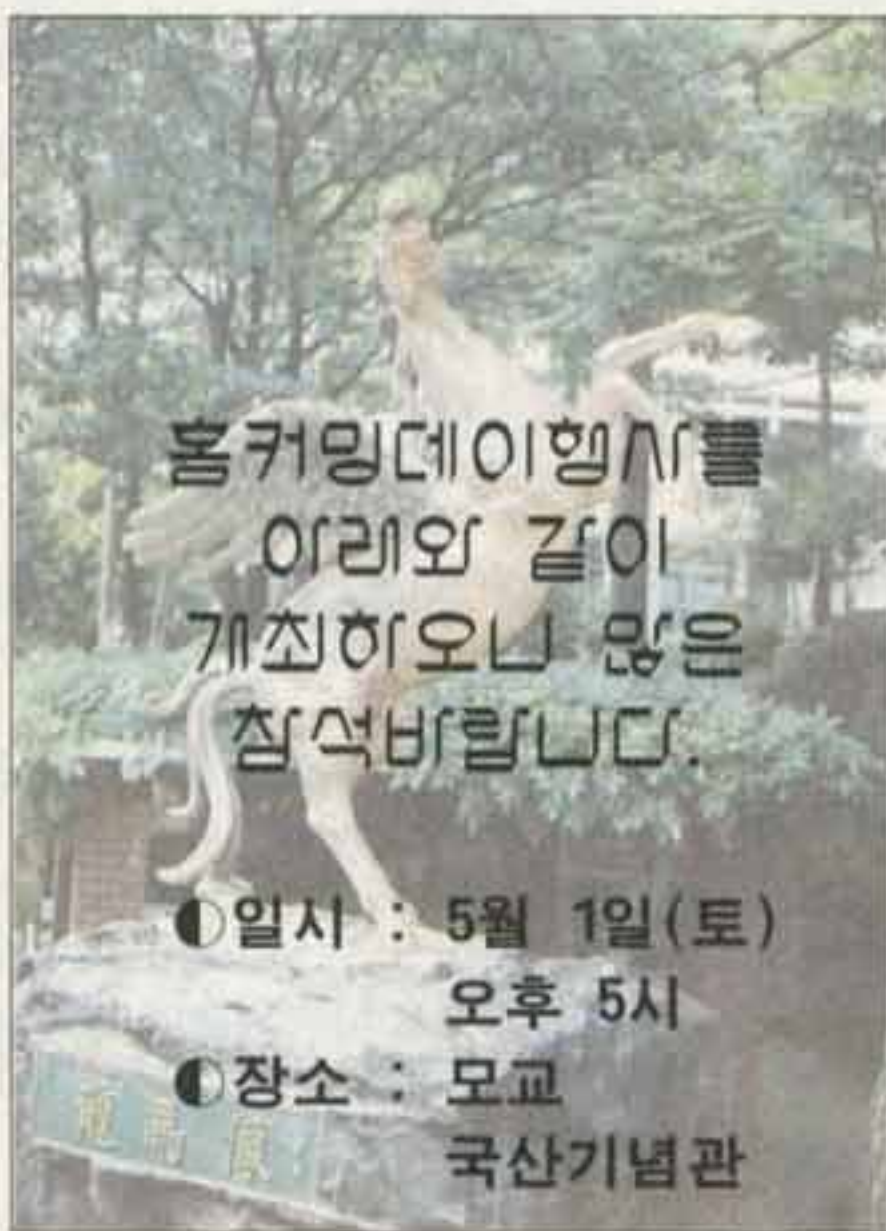


신현호동문(14회·중부산재부서장·사진)은 3월 19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신현호칼럼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에 펴낸 칼럼집은 신동문이 평소 여러지면에 게재했던 '버리가 아까운 글'들을 모아 정리한 뒤 한 권의 책으로 꾸민 것.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신동문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거창·창원 세무서장 등을 지냈고 동의대 중소기업대학원과 양산대에 출강중이다.

제33회 동기회 졸업20주년기념 모교방문행사



홀커밍데이행사를 아리외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5월 1일(토) 오후 5시
- 장소 : 모교 국산기념관

- | | | |
|------------------|----------------|---------------|
| 본부동기회(회장 윤성국) | 제주동기회(회장 이영헌) | 사하동기회(회장 서길원) |
| 재경동기회(회장 손학근) | 거제동기회(회장 천탁기) | 의사모임(회장 배종현) |
| 마산·창원동기회(회장 김재룡) | 포항동기회(회장 임완영) | 교수모임(회장 고창성) |
| 울산동기회(회장 이순환) | 통영동기회(회장 김의연) | 교사모임(회장 주영민) |
| 김해동기회(회장 박중철) | 해운대지역회(회장 송중헌) | 삼 솔 회(회장 박태우) |

새로운 천년의 인쇄문화, 동방인쇄가 주도해 갑니다!

보다 정밀한 컬러인쇄의 스피디한 완성을 위해 자동제어에 의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동방인쇄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를 고루 갖춘 Non-stop Total System으로 밀레니엄시대를 앞서갑니다.

회사주요시설

- ▷양면색 일직선 6색인쇄기(일본,미쯔비시)780×545mm
- ▷4색 일직선인쇄기(독일,게바우)1030×740mm
- ▷2색 일직선인쇄기(독일,일러)1030×740mm
- ▷각종제본시설(일본,캐넌,디아러리,무선,중첩,권박)
- ▷고해상도완색분해기(마그니스켄650)
- ▷포스트 스크립트 출력기 (Lino,Type-Hell530,330,Doleve·440)
- ▷Machintosh,IBM호환기종
- ▷책입다국어·대용 가능(英,日,韓,中語)

주요품목

- ▷CIP,카타록,브로셔,DM,신문,회보,캐넌, 다이어리,일반 사적류,기타 각종 출판물
- ▷해와용(영문,일본,중문,러시아용·홍보물)

●E-mail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동방인쇄

본 사: 부산광역시 동구 범선동 880-1(금성재분B/B 3F)
T.E.L : (051)636-9477(대) FAX: (051)636-9478
김해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74
T.E.L : (0526)339-9775,339-9771
E-mail: Dongbang@chollian.net